

배포일시	2018. 9. 21.(목) 16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	담당자	과장 원재광
		전화번호	02-2181-0372

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, 금오산 약사암의 절경

- 세계기상기구(WMO) 달력 사진공모전 대한민국 사진 2점 선정 -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9월 19일(수) 세계기상기구(WMO)에서 개최한 2019년 달력사진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사진 두 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세계기상기구(WMO)는 191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공모하였으며, 기상청은 그간 기상·기후 사진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선정하여 본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, 최종 13점 중, 2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※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: 태양, 지구와 날씨 (The Sun, the Earth and the Weather)

□ WMO 담당자는 이번 사진공모전에 전 세계에서 약 1000여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어느 해 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밝히며, 대한민국의 사진에 대해 극찬을 덧붙였다.

※ 1차 심사를 거친 75개 작품(대한민국 7개)은 WMO 페이스북의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, 최종 13개 작품이 선정됨.

- 선정된 사진은 신규호 작가의 “돌탑과 햇무리(Stone tower with solar halo)”와 오권열 작가의 “혹한의 아침을 열다(The sun opening a freezing morning)”로 각각 WMO 달력의 표지와 2월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매년 우리 기상청에서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기상·기후사진전에 출품된 수준 높은 작품이 WMO 달력 사진공모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이번 선정을 통해서 기상·기후사진 공모전에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: WMO 달력사진공모전 선정작

돌탑과 햇무리 (표지)



[작품설명] 금오산 약사암에 올라 일출을 맞이하던 중, 운해가 걷히면서 강렬한 아침 햇빛에 태양 주위에 두 겹 세 겹 햇무리가 나타나 돌탑과 함께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. (2018년 제35회 기상·기후사진전 / 입선)

흑한의 아침을 열다 (2월)



[작품설명] 영하 18도의 흑한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상고대와 물안개, 그리고 찬란한 아침빛이 있는 겨울의 아침풍경입니다. (2017년 제34회 기상·기후사진전 / 동상)